

거룩한 사명 HOLY MISSION STORY

 거룩한선교이야기 · HolyMStory

Holy Mission Story • 3400 W. 6th St. #202 Los Angeles, CA 90020 • T. (213)559-7500 • info@holymstory.com

제4호 | 2025년 2월 15일

www.holymstory.com

생활선교·경제공동체·IT선교

부끄러움과 비겁함
<사설>

3.1 독립선언
그 역사적 의미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정책

극단적인 기상 현상

아주사
부흥운동

에즈베리
부흥운동

시련을
축복의 통로로

교회의 본질은
사랑과 섬김

SNS 선교



사 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17:17)

사 호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사명선언문

진리 수호의 사명을 다한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한다.
선함 추구의 사명을 다한다.
교회 세움의 사명을 다한다.
차세대 선교 사명을 다한다.

세계 빙상대회
금메달 잔치

남가주호남향우회
제45대 김재율 회장 취임



종합 뉴스	P.1-4
오피니언	P.5-7
교회와 선교	P.8-10
신앙과 영성	P.11-12
사회와 생활	P.13-14
도산신보	P.15
신용사회	P.16


비영리단체
관리가 필요하다

젊은 연령층에
확산되는 통풍

도산정신3
실력양성론

 **Emmanuel University**
Academic Program
Master of Divinity (M.Div) 목회학 석사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 상담학 석사
Doctor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 상담학 박사
전학 및 입학 상담, SEVIS I-20
www.emmanueluniversity.org
3400 W. 6th St. #200, Los Angeles, CA 90020
213-674-7850
emmanuelu314@gmail.com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율 목사
213-550-7377
255 S. Hill St. #401 LA, CA 90012

 **Galilee School of Theology**
갈릴리 신학 대학원
Master of Divinity (M.Div) - 목회학 석사
Master of Sacred Theology (STM) - 신학석사
Doctor of Sacred Theology (STD) - 신학박사
신입생 입학 및 전학 가능, SEVIS (I-20) 인가
www.gstla.com/gstlaca@gmail.com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255 S. Hill St. #401, Los Angeles, CA 90012

남가주호남향우회 제45대 김재울 회장 취임



‘설날큰잔치’는 남가주호남향우회가 1980년부터 지난 45년간, 매년 설날에 남가주 한인 동포들을 모시고 베푸는 잔치이다.

남가주호남향우회는 이날 ‘회장단 이취임식’을 함께 개최하여 한인사회에 공표하고 한인사회 봉사단체로서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25 설날큰잔치 및 제45대 회장단 이취임식’으로 개최되어 아로마센터 더윈 이벤트홀에서 2025년 1월 29일(설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200여 분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제1부 취임식은 김환단 수석부회장의 사회와 차종환 초대회장의 개회선언, 그리고 진건호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진건호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하였다.

29대 에드워드 구 회장의 향우회연혁 소개에서는, 남가주호남향우회의 창립배경으로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으로 1980년 6월 창립되었으며, 향우

회는 ‘약무호남, 시무국가’, 동학혁명, 광주학생의거, 5.18광주민중항쟁, ‘대동정신’등 5가지 설립 기본정신도 소개하였다. 김재울 회장은 취임사에서 호남인들의 아픔을 말하며 신뢰와 믿음으로 일치단결하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고국의 정치, 경제, 안보 상황이 매우 위태로운데 국가의 위난에 분연히 일어섰던 호남인의 기상이 필요한 때이며, ‘상생공존’을 위한 선진 ‘제7공화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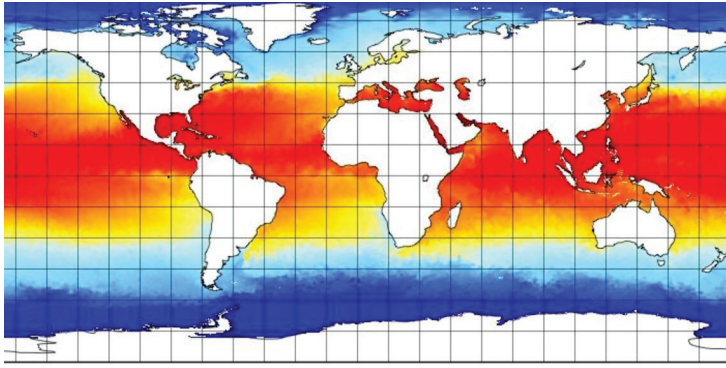
남가주호남향우회는 올림픽경찰서가 코리아타운에 안전과 공고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며, 경찰관들의 헌신적인 공공서비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인커뮤니티를 대표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날 올림픽경찰서장 오코너 캡틴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여 김재울 회장이 수여하였다.

축사순서에는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 정동완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제2부 잔치는 떡국 나누기, 아리랑평화통일예술단의 공연, 노래자랑, 100여 개의 경품 추첨으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다. 특히 참석자 모두에게 기념타올과 안전 알람키트와 많은 선물을 드렸는데, 특히 김치를 한 통씩 나누어 드려 참석자 모두를 기쁘게 하였다.

극단적인 기상 현상



춘계 한파 한강도 결빙
LA 악마의 바람에 이은 장마
엘니뇨는 동태평양 수온 상승
라니냐는 동태평양 수온 하강

한반도를 얼어붙게 했었던 2월의 한파가 그 끝을 보이며 평소 기온과 날씨를 되찾고 있다. 이번 추위는 한국뿐만 아니라 온대 지방에 속하는 일본과 타이완도 한파를 경험하게 하였다. 차가운 바람으로 옷차림이 무거워지고 사회 활동량이 줄어들어 경제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이번 한파는 일주일 이상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고 최대 30cm의 눈이 내렸다. 올겨울 들어 얼지 않았던 한강도 결빙이 관측되었을 정도로 강추위에 노출되었다.

삼한사온이 뚜렷한 한반도와 주변에 이번 한파가 1주일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길었던 한파의 원인은 절리 저기압이다. 절리 저기압은 북쪽의 찬 공기를 그대로 머금고 떨어져 나온 소용돌이성 바람을 말한다. 입춘 한파가 시작되기 전 한반도 기압계는 한기를 머금은 중심 절리 저기압 2개가 나타났다. 그 첫 번째 중심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한국에는 한파, 일본에는 폭설이 시작됐다.

이어 두 번째 절리 저기압이 갖은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정체하던 첫 번째 저기압과 합쳐지고,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또다시 한파와 폭설을 불러왔다.

일본 홋카이도에는 12시간 동안 무

려 120cm 이상의 눈이 쏟아졌고, 닥새간 아오모리현 등 곳곳에서는 3~4m의 적설이 기록되기도 하였다. 이번 한파는 타이완에도 영향을 주어 타이완 기온은 평소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떨어지고, 비교적 따뜻한 지방인 타이완 주민들은 난방 기구를 잘 구비해 두지 않아 하루 만에 78명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반면 남부 캘리포니아는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거의 비가 오지 않아 강수량 부족으로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급수에 제한을 둘 정도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앞친데 뒀친다는 격으로 얼마 전에는 매우 큰 산불 재난을 경험하였다. 안타깝게도 악마의 바람이라고 불리는 세찬 바람의 영향으로 너무나 많은 자연과 재산의 손실이 있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강한 장마가 찾아와 19 팬데믹과 함께 금세기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이것은 '엘니뇨'와 '라니냐'가 동시적으로 교차하는 형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서로 정반대인 이 두 현상은 전 세계 날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몇 년째 라니냐 현상을 겪고 있다. 동쪽의 남아메리카에서

서쪽의 아시아를 향해 태평양 위 적도를 따라 부는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져 라니냐가 발생하면 서태평양의 수온은 올라가고 동태평양은 차가운 해수가 강하여 수온이 낮아지게 된다.

엘니뇨는 라니냐의 반대 개념으로, 무역풍이 약해지면 따뜻한 온수가 평년보다 동쪽에 머물게 된다.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지구의 온도는 약 0.2°C 상승하며, 반대로 라니냐일 때는 약 0.2°C 떨어진다. 엘니뇨는 공기가 고온 다습해지면서 더 많은 열이 대기로 방출되게 된다.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미국 북부 지역과 캐나다는 건조한 날씨를 보이고, 아시아와 호주, 중앙아프리카와 아프리카 남부엔 가뭄이 찾아오곤 한다. 그 반대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미국 남부는 가뭄이 찾아오고 캐나다와 아시아는 폭우 피해를 겪는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평균적으로 2~7년마다 발생하며, 한번 발생 시 보통 9~12개월 지속된다.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전 세계 인프라, 식량, 에너지 시스템 등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 빙상대회 금메달 잔치

유니버시아드 / 스페셜올림픽 / 아시안게임

겨울 스포츠 계절을 맞아 최근 굵직한 세계대회가 연속적으로 치러지면서 낭보를 전해주고 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한국인들의 관심 스포츠 종목은 야구, 축구, 골프, 농구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을 빛낸 스포츠 선수들의 순위를 보면 의외로 겨울 스포츠 스타인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오랫동안 압도적 1위를 유지하였다. 김연아 선수는 불모지에 씨앗을 뿌렸고 김연아 키츠로 불리우는 훌륭한 선수들이 뒤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피겨스케이팅뿐만 아니라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등 빙상경기는 겨울 스포츠의 핵심 종목이며, 한국은 주요 종목에 강한 면을 보이고 있다. 쇼트트랙은 111.12m의 실내 오벌 트랙을 3명 이상의 스케이팅이 같은 트랙을 공유하며 스피드로 순위를 겨루는 종목이다.

2025년 FISU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2025년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선수단은 6개 종목에 79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대한민국은 금메달 8, 은메달 6, 동메달 6개로 종합성적 2위를 달성하였다. 역시 쇼트트랙에서 강세를 보여 5관왕을 차지하였다.

이어 29일부터 2월 9일까지 동계 스페셜올림픽이 열렸다. 이 대회는 세계발달장애인 스포츠 축제로 한국에서는 7개 종목에 총 4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성적순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다른 대회들과는 달리 스페셜올림픽은 추첨으로 출전 선수를 결정하는 특별한 방식을 취한다.

또 하나의 큰 대회는 2025 동계아시안게임으로 2025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되고 있다. 34개국 1,273명의 선수가 참가하는데 한국에서는 148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빙상 5종목, 설상 6종목 중 역시 한국은 쇼트트랙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자리잡으면서 국내 훈련 환경이 전문화되어 훈련된 코칭으로 우수 선수를 개발하고, 국제 대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은 내고 있어 K-스포츠로 국격을 높이고 있다.



<사설>

부끄러움과 비겁함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은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용기는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보나 땅을 굽어보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길 원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가 있다.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맹자는 말하길 사람은 인, 의, 예, 지의 네 가지 덕성을 가지고 있는데, ‘수오지심’ 즉,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하였다.

예수님도 양심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공분하시며,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고 사람다움을 상실한 그들을 간악한 짐승으로 취급하였다.

법은 정의를 전제로 하지만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 결국 정의의 수단으로 법을 집행하고 운용하는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과거에 선비들은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기품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세 유럽에 신사의 조건으로 ‘기사도’ 정신이 있다. 기사도란 영웅이 갖춰야 할 이상적인 품성으로 무용, 성실, 명예, 예의 등의 덕목이 있었다. 윗사람에게는 겸손으로 동료에게는 예의로 약자에게는 연민으로 대했다. 중세의 몰락 이후 기사도를 대신하여 ‘신사도’가 나

타났다. 이는 명예의 존중과 관용, 봉사, 페어플레이 정신 등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존엄성과 살아가는 방식을 비겁함과 바꾸지 않겠다는 철학이다.

‘노블레스 오블레주’는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이다.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구절이다.

현대를 물질만능주의시대, 독점자본주의시대, 무한경쟁시대로 표현할 때, 마치 사파리에 와있는 듯이 섬뜩하다. 정치계, 종교계, 경제계 등 사회 지도층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 또한 저항력이 발동한다. 벽창호처럼 고집만 세고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융통성은 전혀 없고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인간들로 넘쳐나기 때문이다.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함을 반영한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고 성찰 없이 자신의 결정을 계속 강요한다.

또한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은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드러내는 데에만 치열하게 반응한다.

결국 이 같은 행동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뢰와 존경이 사라지게 하며 궁극적으로

적대적인 환경과 같은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물며 국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그와 같으면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종교 지도자가 그와 같으면 혼란에 빠진 신도들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망둥이처럼 날뛰게 될 것이다.

반면에 비겁함은 인정된 잘못에 직면하여 행동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비겁함은 불의에 맞서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등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신 모른 체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본질적으로 비겁함을 보이는 사람들은 부정과 무능의 순환을 지속해 나갈 위험성이 높다.

비겁함에 굴복하지 않고 이해하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용기는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다. 이런 사람은 용기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겸손하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단점과 결점, 그리고 행동의 결과를 인정하고 시정할 줄 안다.

우리는 왕정시대의 백성이 아니라 공화국의 국민이며 민주주의 시민이다. 기사처럼 명예롭게, 신사처럼 관용하게, 선비처럼 기품있게 살아가는 시민들로 채워질 때 망나니의 칼춤도 잠재울 수 있다. 부끄러움과 비겁함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편집장 Joshua Chung>

제106주년에 묵상하는 3.1운동

3·1운동은 독립운동의 촉매 역할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

3·1운동은 대한민국 연호의 원년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다. 한국 역사의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3.1 운동은 1910년 한국 합병 이후, 10년 동안 수립된 일본의 식민지 무단통치에 대응하여 시작되었다. 3.1운동은 식민지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옹호하는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연설에 영향을 받아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영감을 받은 독립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 고종황제의 독살설과 장례식이 기폭제가 되었다.

그 운명적인 날, 한국 지식인 그룹은 태화관에서 학생들은 탑골공원에 모여 한국 독립 선언서를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이 문서는 한국의 자치를 요구하고 억압적인 일본의 통치를 비난하고자 했다. 이 선언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시위를 촉발했으며, 상인, 노동자, 여성, 어린이를 포함하여 약 200만 명이 평화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시위에 대한 대응은 잔혹할 정도로 폭력적이었다.

군대와 경찰이 시위자들을 탄압하여 약 7,500명 이상 사망하고 부상자가 45,000명 이상, 수만 명이 체포되었다. 억압의 잔혹함은 한국 국민의 불굴의 정신뿐만 아니라 식민지 강국이 영토를 통제하기 위해 얼마나 폭력적으로 행동했는지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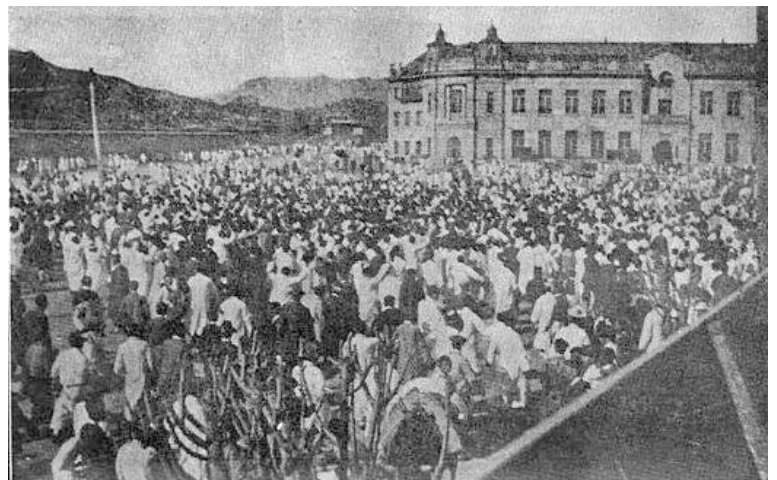
3·1운동의 중요성은 1919년의 직접적인 사건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 독립운동의 촉매로 여겨지며, 조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다양한 세력을 통합했다. 이 운동은 한국인들 사이에 국가적 정체성과 연대감을 형성했고, 이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의 저항 노력에 영감을 주었다.

3.1운동은 일본의 유화 통치, 국제사회 한국의 독립의지를 선포했으며, 민족적 연합전선을 형성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비폭력무저항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 헌법에도 계승을 명시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운동

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대한민국 연호는 1919년 3.1운동의 해를 그 원년으로 삼는다.

2025년 3.1운동 106주년, 3.1운동이 과연 한국민의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에 핵심으로 남아 있으며, 국가적 자존심과 국제 관계를 둘러싼 현대적 문제에서도 여전히 그 자유와 주체성이 공명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세계 234개국 중 10대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어찌 아직도 종속적 사대주의적으로 역사를 다시 쓰려하는지? 그 원인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형교회 중심의 기독교 신우파 뉴라이트의 역사관의 영향이 한반도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국민에게 영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회주의적이고, 물질적이며, 이기적인 인간상을 그리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깨치고,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이 더 더욱 가열 차게 전개되어야 함을 필요로 한다.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정책

트럼프정부의 이민 정책은 특히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재도입되고 확대되면서 상당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의 이민정책은 개인과 더 광범위한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의 이민 접근 방식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대량 추방의 약속이다. 행정부는 천이백만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계획을 밝혔으며, 여기에는 공격적인 집행 조치와 잠재적으로 눈에 띄는 급습이 강행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것이 가족과 지역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적이 된 사람들 중 다수가 미국과 깊은 인연이 있고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여기에 있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영향도 중요한데, 농업, 건설 및 다양한 서비스 부문의 노동력 상당 부분이 불법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드러진 우려는 이러한 추방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생산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많은 잠재적인 신청자들의 망명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이민자들이 멕시코에 머물러야 하는 정책은 법적 문제에 직면했으며 심각한 장애물로 여겨진다. 근본적인 이유는 종종 국가 안보 조치로 규정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망명 신청자를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알려진 인도주의적 조항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잠재적으로 폭력이나 박해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많은 개인에게 법적 경로를 제한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적 해석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비상 시 정부가 정상적인 이민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사용하면 신속한 구금 및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합법적이지만 비시민에 대한 대우와 그들이 가진 기본적 권리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양산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그러한 조치를 보장하는 비상 사태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에서 상당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민자, 특히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려는 이민자에 대한 강화된 이념적 심사를 추진하는 것은 개인의 신념과 소속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개인을 전체주의 정권에서 배제하는 법률이 존재했던 것도 주지

의 사실인바 매우 우려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이러한 조항의 엄격한 집행은 윤리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억압적인 정권으로부터 미국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정치적 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트럼프 정권하에서 더 가혹한 이민 정책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더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이민자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공격적인 집행으로 인해 끊임없이 추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며, 의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주사 부흥운동

Asuza Street Revival



첫째, 성령 강림의 체험

둘째, 회개와 교회 공동체적 생활을 강조

셋째, 회개와 교회 공동체적 생활을 강조

넷째, 초자연적 영적현상

특징, 오순절 운동의 시작

최근 '임마누엘부흥운동'을 꿈꾸면서 미국의 부흥운동의 역사들을 펴보고자 한다.

아주사부흥운동(Asuza Street Revival)은 1906년부터 1915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스트리트에 위치한 아주사 거리 선교회(Azusa Street Mission)에서 일어난 기독교의 부흥 운동이다. 아주사부흥운동은 성령의 역사와 방언, 치유, 신유, 그리고 많은 기적들로 특징지어졌으며, 특히 오순절 운동(Pentecostalism)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다.

교회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드러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성령 강림의 체험이다.

아주사 부흥운동은 성령의 강림과 성령 충만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며 방언을 말하거나 신유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간증했다.

둘째는 다양한 민족이 참여했다.

1910년대의 미국은 아직도 인종간

의 차별이 매우심했던 사회였고,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아주사부흥운동은 인종, 경제적 배경,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점에서 특별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 다양한 민족이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고 기도했다.

셋째는 회개와 교회 공동체적 생활을 강조했다.

아주사 거리 선교회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며 회개와 기도, 그리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강조했다. 그들은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추구했다.

넷째는 초자연적 영적현상이 많았다.

그들이 모일때 마다 방언, 치유, 예언, 기적 등이 일어났다는 증언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이 운동은 당시 기독교 내에서 큰 논란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성령시대의 새로운 영적체험으로 인식되기까지 많은 교회들의 고민들이 있었다.

아주사 부흥운동의 영향과 그 유산으로는 무엇보다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었

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아주사 부흥운동은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며 오순절 교회를 태동시켰고, 오늘날 오순절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신자를 보유한 대형 기독교 교파가 되었다. 특히, 예배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신유, 기적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기성 교단에서도 많이 생겨나 교계 전체의 영성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이같이 아주사 부흥운동은 20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많은 교파와 신앙 공동체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지나친 신비적 은사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진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성령과 성령사역에 대한 왜곡 혹은 편협, 아니면 축소시키는 위험성과 또한 원래, 혹은 초기의 교회 공동체적 신앙과 사회변혁적 부흥운동의 요소들을 반감시키고, 또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성향의 인간본연의 삶에 대한 더 구별됨 없이 오히려 동화되는 성향에 대한 우려적 시각이 존재함도 부인할 수 없다.

에즈베리 부흥운동

Ashbury Revival

첫째, 성령의 임재와 영적 각성이다.

둘째, 자발적인 참여이다.

셋째, 기도와 회개의 분위기이다.

넷째, 전국적인 영향력이다.

특징, 대학생 중심의 부흥 운동이다.

2년 전 2월, 윌모어 켄터기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에서의 부흥이 생각난다. '홍뚜레' 동양인 교환교수의 '회개와 예수구원'의 샌드위치 퓌말 전도 2년 후, 대학 채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설교에 학생들이 남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에 의해 시작되었다.

3주간 온 시티에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으로 인해 윌모어 시장과 에즈베리 대학 총장이 그 부흥 채플을 닫으면서 타 대학으로 부흥의 불길이 번지게 된 부흥의 역사이다. 이에 최초로 일어났던 에즈베리 부흥운동을 살펴보려한다.

에즈베리 부흥운동(Ashbury Revival)은 1970년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Ashbury College)에서 일어난 대규모 기독교 부흥 운동이다. 이 운동은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학생들 사이의 영적 각성과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으로 유명하다.

에즈베리 부흥은 1970년 2월 3일, 에즈베리 대학에서 열린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학생들은 특별한 기도와 예배 중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고, 그 결과로 기도와 찬양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이 부흥은 공식적인 일정 없이도 여러 날 동안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전국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성령의 임재와 영적 각성이다.

부흥 운동의 중심은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참석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적 각성을 일으켰다. 기도와 찬양, 회개와 고백의 시간이 이어졌다.

둘째, 자발적인 참여이다.

에즈베리 부흥의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영적 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이 부흥은 교회나 단체의 공식적인 조직 없이 학생들과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간의 자연스러운 참여로 확산되었다.

셋째, 기도와 회개의 분위기이다.

부흥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특히, 이 운동은 회개와 자아의 부정,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성격을 띠었다.

넷째, 전국적인 영향력이다.

에즈베리 부흥은 이후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부흥의 소식은 다른 대학들과 교회들로 퍼져갔고, 그곳에서도 비슷한 기도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이 운동은 1970년대 초반의 예수 운동(구도자 운동)과 맞물려 크

게 확산 되었다.

에즈베리 부흥이 미국과 세계 기독교계에 끼친 영향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회개, 각성의 필요성을 상기시킨 사건이었다.

특히, 학생들 중심으로 일어난 이 부흥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운동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에즈베리 부흥은 당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예수운동과도 관련이 깊다. 예수 운동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기독교 개혁 운동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신앙적 각성의 물결이었다.

에즈베리 부흥은 이 운동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 부흥은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나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영적 각성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개인적인 신앙 회복과 교회 내 영적 갱신의 계기를 제공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에즈베리 부흥은 영적 각성과 회개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후 부흥 운동과 교회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 후로도 몇 번의 에즈베리 부흥이 발생했으며, 최근 2년 전에도 에즈베리 대학을 중심으로 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현상을 가지고 발생하여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찬양과 회개 기도와 영적 생활적 각성이 일어나는 부흥을 맛보게 했다.

이 부흥은 또한 신앙의 회복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시킴과, 차세대 크리스찬 학생들 사이에서 중요한 영적 경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망, 치유, 변화의 SNS 선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을 주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상처받은 영혼에게 소망과 치유와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지역의 한계를 뛰어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SNS(Tiktok, Youtube...)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꽃 사진 위에 영어와 한국어로 제작하여 매일 upload 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Russia, Germany, Guam, Japan, Nelgium, France, South Korea, Lithuania, Puerto Rico, Czechia, Rucia, Mexico, Canada...)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사의 댓글과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주시는 말씀으로 해결되었다고 응답을 주었을 때에, 사역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소망과 치유와 새로워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직접 찾아가서 전할 수는 없지만, SNS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니,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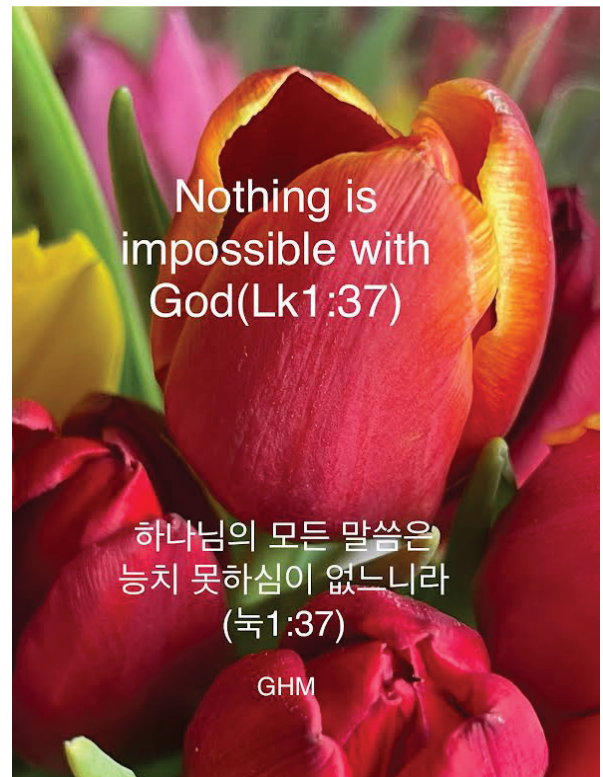
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tiktok.com/@oshmsn

www.youtube.com/@ghm5151

Global Hope Mission 대표

Rev. Dr. David Oh



가슴에 아직 그 눈비

석정희



갈피에 묻혔던
빛바랜 사진 한 장
밝은 불빛에도
희미한 어름

별 비추이다
바람 불고 비 쏟아져
창살에 부서지던 빛
안으로 와 다시 쌓이고

계단을 타고 오르던
빛을 가리던 눈송이
지금 어디에 쌓였을까
쌓여가고 있을까

빛바랜 사진 속의
바람과 별과 그 비와 눈
가슴에 눈벌로 남아
아직 녹지 않고.....

시련을 축복의 통로로

나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겠다
나의 가정을 밝게 유지하겠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겠다
나의 시련이 유익이 되도록 하겠다

영국 감리교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다. 윌리엄 생스터(William Sangster) 목사님이다. 그는 열정적이며 박학한 설교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다. 그것은 갑자기 근육이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병원을 찾아가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다. 결과는 고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때 윌리엄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네 가지를 결심을 하였고, 남은 생애 동안 결심한 네 가지를 지켰다고 한다. 그가 불치병을 선고받고 결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I will never complain'(나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겠다). 불평은 어느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불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다. 윌리엄 목사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불치병이라는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 불평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언을 하였다.

둘째: 'I will keep the home bright'(나의 가정을 밝게 유지하겠다). 그는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우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가정은 가족이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윌리엄 목사님은 자기 때문에 가정이 어둡거나 가족이 우울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편한 몸을 곳곳이 지탱하면서 가정을 밝고 명랑하게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셋째: 'I will count my blessings'(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겠다). 감사는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행위이다. 윌리엄 목사님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현재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겠다는 선언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구원 받은 성도의 제일 되는 삶이 아니던가?

넷째: 'I will try to turn it to again'(나의 시련이 유익이 되도록 하겠다). 사람마다 시련은 있다. 대체적으로 시련이 닥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가혹한 시련은 살

소망마저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련만 주신다.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래서 시련은 연단이다. 윌리엄 목사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련을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우리도 윌리엄 생스터 목사님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 갈 수 있기를 원한다. 모든 인생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 이때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도리어 감사하고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 내게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벳선교회 대표 홍성관 목사〉



경산한의원
원장 유재규
213-505-6747
3030 W. Olympic Blvd. #202, Los Angeles, CA 90020



벤자민건축기술학교
교장 모종태 장로
213-909-2005
3400 W 6th St #200, Los Angeles, CA 90020

교회의 본질은 사랑과 섬김이다

- 진건호 목사 인터뷰 -

이글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이며 하톤교회 담임으로 시무하는 진건호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자] 목사님,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남가주교협)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진건호 목사] 감사합니다. 남가주교협은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이지만, 지난 수년간 여러 갈등과 분열을 겪으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래 하나 되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갈등과 입장 차이로 인해 나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남가주교협을 다시 하나로 묶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목회자로서의 길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진건호 목사]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18세에 하나님께 서원하며 목회의 길을 결심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학생회장을 맡아 리더십을 경험했고, 군복무 시절에는 군종병으로 봉사하며 신앙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20세에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며 사역을 시작했는데, 안산제일교회에서 학생부를 담당하며 젊은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28세에 안산동산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기다 30세에 흰돌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개척교회를 경험하셨는데, 이후 미국으로 오시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진건호 목사] 1999년, 알라바마의 한 인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여 하톤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목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미국에서도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렌트비 부담으로 인해 사역을 지속하기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를 연결하여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자] 최근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진건호 목사]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최근 남가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남가주교협 차원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15만 개의 마스크를 확보하여 지역사회에 배포했고, 신발, 담요, 위생장갑 등 필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구호 지원 본부장을 맡아 후원금과 기부 물품을 모으는 일을 전담했습니다. 또한, 한인 목회자들과 연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식료품 지원 및 상담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진건호 목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섬김, 그리고 하나 됨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개척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했으면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기자] 목사님의 귀한 사역과 비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귀한 사역을 이어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진건호 목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인터뷰 정리: Joshua Chung



비영리단체 관리가 필요하다

비영리단체 관리의 핵심은 서류 정리와 보존 그리고 언론홍보이다.

잘 관리된 비영리단체는 세금 감면과 그랜트를 받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NPO)를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주 및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이 장기간 관리 소홀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한인 단체들은 회장이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아, 행정 서류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 설립 과정과 관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비영리단체는 자선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종교, 선교, 교육, 의료, 환경 보호, 사회 정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될 수 있다. 비영리단체의 장점은 첫째, 창립자의 사망이나 퇴임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존재함으로써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둘째,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이사과 임원의 개인 자산이 비영리 활동에 따른 재정적 위험에서 보호받는다. 넷째, 연방 소득세에서 면제가 되어 미션에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기부 및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려면 먼저 단체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비영리단체로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한다. 목적이 명확해지면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의 이름을 만들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동일한 이름이 사용되

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비영리단체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하고, 설립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대표(Chief Executive Officer), 서기(Secretary), 재무(Chief Financial Officer)를 선정하여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관장하므로 해당 부서인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는다.

비영리단체로서 기능하려면 연방국세청(IRS)과 주 세무국(FTB)에 면세 등록(Tax-exempt status)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연방국세청(IRS)은 종교단체와 병원, 학교, 양로원 등은 Form 1023을 사용하고, 그 외의 비영리단체(향우회, 동창회, 상조회, 등)는 Form 1024를 통해 면세를 신청하게 한다.

주 세무국(FTB)은 Form 3500A 또는 Form 3500을 제출하여 주정부 면세 신청을 한다.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연방세금번호(Federal Tax ID: EIN)를 받게 되는데, 이로써 비영리단체가 기부와 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 공제를 위한 모든 절차가 구비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관리가 중요하다. 첫째는 투명한 재무 관리이다. 비영리단체는 기부금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한 재무 관리가 핵심입니다. 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계 기록을 세심하게 유지해야 한다. 둘째는 정

관 및 규정 준수이다. 비영리단체의 정관(회칙)과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셋째는 보고 및 신고 의무이다. 정기적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는 주의 사항이다.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하며, 영리적인 활동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정치 활동을 제한하거나 규제받을 수 있다.

중요한 보고는 국세청(IRS Form 990)과 주 세무국(FTB Form 199)에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다. IRS Form 990 보고를 3년 이상 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연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단체는 IRS Form 990N과 FTB Form 199N를 통해 간단히 보고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체가 집행하는 운영, 관리, 보수, 계약, 행사 등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공시되어야 한다. 만일 그랜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라면 언론을 통해 각종 행사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여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비영리단체는 기부금 및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랜트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랜트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단체들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서류 구비와 각종 자료 수집에 치중하여 기록과 보존을 통해 비영리단체가 잘 관리되길 바란다.

젊은 연령층에 확산되는 통풍

왕의 병 통풍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은 말 그대로 바람만 불어도 아플 정도로 격심한 관절통이 오는 병이다. 주로 혈중 요산치가 높은 중년 이후의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 20~30대 남성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젊은 연령층 발병이 문제가 되는 것은 통풍이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통풍은 부유한 사람들의 병으로 알려져 왔다. 과거 유럽에서 통풍은 왕이나 귀족들이 걸리는 병으로 인식되어 “왕의 병”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이는 고량진미로 대변되는 풍부한 음식 섭취와 음주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식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각계각층의 사람에게 골고루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통풍의 발병은 대부분 급성 통풍 발작부터 시작한다. 엄지발가락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팔꿈치와 발목과 무릎 관절에도 자주 발생한다. 통풍 환자들은 대개 잠을 깰 정도의 격심한 관절통을 호소하는데 통풍 발작이 온 관절은 붉은빛을 띠고 붓는다.

그러나 통풍 발작이 지나간 후 수주 혹은 수개월 동안 씻은 듯이 아무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발병은 음주나 과식, 수술 또는 관절을 다친 후에 통풍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만성으로 진행되면 요산 결정체가 모여 관절과 관절 주위 조직이나 팔꿈치, 귀 등 여러 곳에 통풍 결절이 생긴다. 증세가 심해지면 연골과 뼈가 파괴되어 불구가 될 수도 있기에 발병 초기에 이러한 만성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풍검사

통풍검사에는 ‘관절 윤활액 검사’와 ‘혈청 요산 농도 측정’이 있다. 먼저 ‘관절 윤활액 검사’는 통풍이 의심되는 관절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윤활액을 뽑아 내어 현미경으로 요산 결정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혈청 요산 농도 측정’ 검사는 요산 분해 효소(Uricase)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요산은 세포의 핵에 함유된 핵산(DNA, RNA 등) 성분 중의 하나인 퓨린체가 체내에서 분해되어 생기는 최종 대사산물이다.

통풍이란 몸 안에 요산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이다. 따라서 요산 수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요산의 정상 범위는 17세 이상 성인의 경우 남자는 3.4~7.0mg/dl, 여자는 2.4~6.0MG/dl이다. 1일 배설되는 요산의 양은 약 400~900mg으로 그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풍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내 요산 수치를 정상(3~7mg/dl)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요산은 격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체내에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퓨린체를 다량 함유한 식품을 섭취할 경우 또는 신장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수치가 상승한다.

예방과 치료

통풍은 요산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발생하지는 않는다. 고요산증의 약 10%에서만 통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이 오지 전까지는 요산 수치를 높이는 조건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통풍증세가 없더라도 요산 수치가 13mg/dl을 초과하면 고요산증으로 간주하고 약물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통풍 환자는 정상체중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술을 절대 삼가고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통풍 환자가 먹어도 좋은 음식으로는 두부, 달걀, 저지방 유제품, 우유, 채소와 과일 등을 꼽을 수 있다. 통풍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채소와 과일로는 감자, 토마토, 무, 배추, 브로콜리, 체리 등이 있다. 육류와 생선(등푸른 생선 제외), 시금치, 버섯, 콩 등은 통풍이 회복된 후에 섭취 가능하다.

반면 고등어, 멸치, 오징어 젓갈, 소고기 무국 등은 퓨린 함량이 높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이나 탕의 국물을 다 먹지 않고 건더기만 먹는 것도 퓨린 섭취를 줄이는 방법이다.

〈한의학박사 박철규〉

퓨린이 많이 들어 있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청어



새우



정어리



방어



장어



조개



꽂치



참치



삼치



멸치



도산정신3 "실력양성론"

도산 안창호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실력양성론' 또는 '역량 배양론'으로, 개인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교육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실력양성론은 특히 그가 살았던 일제시대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는 개인과 국가의 권한 부여를 모두 다루었기 때문이다.

안창호는 한국 국민이 독립을 얻고 사회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자체 역량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개념은 교육이 국가 독립에 필요한 개인적 미덕, 시민적 책임, 집단적 힘을 개발하는 초석이라는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억압적인 식민지 통치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에 역량 개발에 대한 그의 강조는 형식적인 교육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식민지 강대국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도덕적, 윤리적, 영적 차원의 교육을 포괄했다.

안창호의 역량 접근 방식인 '실력양성론'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홀리스틱 교육이다. 도덕적 탁월함이다. 안창호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

리적 책임도 키우는 교육 시스템을 옹호했다. 그는 교육이 지역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감을 키워야 하며, 지식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도산은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개인의 성취가 집단적 복지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해이다. 그는 지역 사회 봉사와 사회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개인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장려했다. 이러한 초점은 해외의 한인을 통합하고 독립을 향한 노력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민회'와 같은 조직을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도산은 기술을 통한 경제부국을 강조한다. 학문적 학습과 함께 실무 기술과 직업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에게 기술을 부여하면 개인의 존엄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자나 한국 모두 지역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상황도 개선될 것이라고 믿었다.

특히, 그의 실력 양성론에는 시민 참여의 강조점도 드러난다. 안창호는 시민들이 사회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믿었다. 그는 특히 해외 거주 한국인들에게 정치 및 시민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문제와 더 큰 국가적 운동을 모두 다루도록 격려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기념하는 "도산 안창호의 날"과 같은 그의 유산에 대한 최근의 인정에서 인정되고 있다.

안창호가 제시한 '실력양성론'은 교육과 시민적 의무에 대한 현대적 민주 사회시민으로서의 역할 논의에서도 계속해서 공명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과 영향력, 그의 업적은 교육과 사회 정의의 추구를 한 세대 한국 지도자와 지식인들에게 기초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안창호의 '역량 배양 이론'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는 다차원적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도덕적 성격의 발달, 시민적 책임, 사회 참여에 대한 헌신이 포함된다. 일제 강점기 동안 그의 공헌은 독립운동의 틀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역 사회 참여와 권한 부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기념되는 유산을 확립했다. 개인과 집단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안창호의 철학은 한국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의 교육, 사회적 평등,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여전히 적합할 것이다.

“시니어 메디케어, 제게 맡겨주세요” 한인타운 최고 허만진 보험인

‘골드웰보험사’ 허만진 부사장은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에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자신에게 꼭 맞고 차별화된 보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보험 신청이 처음이거나 기존에 보험에 가입했지만, 혜택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도와드린다. 보험 가입 후 에이전트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니 능력 있는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허 부사장은 10년째 보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에이전트다.

골드웰보험사 베테랑 허만진 부사장
시간 장소 구분 없이 항상 연결
메디케어 관련 가입 및 변경 상담



문의: 213-700-8150

올해 65세가 되는 1960년생 시니어를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보험을 통해 한방 침술 서비스와 일반 건강용품(OTC)이 최대 보장되고 고급 보청기가 보장된다. 올해는 현금카드, 그로서리카드 등 혜택이 추가로 늘어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보험 가입을 통해 병원과 약국 등 필요한 관련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 받을 수 있다. 늘 고객들로부터 수많은 문의가 끊이지 않는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건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친절이다.

거룩한 선교이야기 청소년 기자단 모집 (HMS Youth Reporter Club)

2025년 봄학기

고등학생 1기 / 중학생 1기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학교, 봉사단체, 커뮤니티, 사회적 이슈 등 자신의 관심 분야 기사를 작성하여,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증대시키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그 기초를 만들어 드립니다.

작성한 기사나 논평, 칼럼 등은 선별하여 월간 '거룩한 사명'지에 영문으로 게재되며, 웹사이트에는 즉시 올려 시사성을 보장합니다.

수습기자 교육과 저널리즘 강의 등은 전문 교수가 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수료증과 기자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대학과도 연계하여 필요한 과목도 미리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문의 213.559.7500

자동차 기부운동 (Car Donation)



전기자동차(EV)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꾸거나, 폐차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한 증대되는 노인인구에 따라 소유했던 차들을 그만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한 어른들이 많이 있어 도움의 손길이 되고 싶은 것이다. 더 높은 가치는 기금이 마련되면 이 기금으로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다. 기부가 이루어지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드리고, 세금 공제도 가능하다.

문의 213.559.7500

기념품 **수건** 저가 제작

교회, 선교회, 동창회, 향우회 등 단체들의 각종 행사에 기념품으로 수건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드립니다.

1. 주문은 100장 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2. 색깔은 하얀색을 기본으로 합니다.
3. 글씨는 작게 넣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4. 제작 기간은 7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5. 기본 외에는 가격이 추가됩니다.



문의 213.559.7500

경배와 찬양팀 및 성가단 모집

'세계선교사연합회'는 영적세계, 현실세계, 가상세계에서까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부흥에 동참하는 '임마누엘 부흥운동'을 시작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생활 선교와 공동체 선교에 헌신할 '경배와 찬양팀'과 '임마누엘 성가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요강]

1. 세례 받고 선교에 사명이 있으신 분
2. '임마누엘부흥운동'에 동참하실 분
3. '경배와 찬양팀' 경험이 있으신 분
4. '교회 성가대' 경험이 있으신 분
5. 매주 연습 또는 연주가 가능하신 분



세계선교사연합회
The World Missionary Federation

3400 W. 6th St. #202, LA, CA 90020

Tel) 213-559-7500, 213-507-9920